

'낮은 곳' 향한 분배경제학 요청

실업과 빈곤에 큰 관심 기울여야

김 균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고통스런 역설이지만, IMF 경제위기 때문에 1998년 동안 경제학자들의 연구활동은 전에 없이 활발했다. 연구의 초점도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 분석과 그 정책적 대응문제에 집중돼 경제학의 실천적 성격이 어느 때보다도 부각됐다. 98년의 주된 논의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의 분석과 대응에 초점

첫째, IMF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단기성 국제유동자본의 급격한 이동, 도덕적 해이에 빠진 국내 금융구조, 기업의 과다차입경영과 과잉투자, 정부정책의 실패 등을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들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외적 요인의 탓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하느냐, 또 후자의 내인론의 입장을 취한다고 할 때 실물과 금융 중 어느 부문이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했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경로와 메커니즘이 실증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분석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분석과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한 엄밀한 가설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내세운 제반 정책들은 이른바 IMF처방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상당수 경

제학자들은 이 IMF처방과 정부정책을 시장주의라고 평가했고 또 이 시장주의적 정책의 효율성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는 특히 구조조정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민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시장주의 입장과 시장의 부재와 조정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정부의 직접개입을 주장하는 개입주의 입장이 대립했다. 이 논쟁은 그 성격이 일차적으로 정책논의고 또 한국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쟁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지않게 쏠렸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대립은 신고전파 전통과 케인즈주의간의 대립이기도 했다.

셋째, 98년은 경제위기의 해이기도 했지만, 정권교체의 해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새로 들어선 정부가 경제위기라는 바뀐 환경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며 또 우리 경제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는 당연히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또 경제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사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열띤 논의는

**올해의 경제학계 활동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깊어질 것이고
정책문제에 대한 현실개입과
새로운 경제모델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의심과 비판이 사회과학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았고, 이는 유럽의 '제3의 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98년에는 현실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개입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었다. 실업, 금융구조조정, 빅딜 등의 정책적 과제가 제시될 때마다 경제학자들은 직간접적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참여 아니면 비판이라는 과거 경제학자들의 이분법적 행태에 비하면 일진보라고 할 것이다.

새 경제모델의 청사진 제시에 노력

99년도 경제학자들의 활동은 9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현 경제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깊어질 것이고 경제학자들의 정책문제 등에 대한 현실개입도 계속될 것이며 또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모델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위한 노력도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

히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업지배구조를 갖느냐는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재벌개혁의 장기적 청사진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경제형태를 생각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와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문제도 사실은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그 핵심이다.

99년도에 경제학자들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회적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다. 실업은 경제학의 전통적 연구영역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간 고도성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경제학자들의 연구영역에서 실업과 빈곤 문제는 사실상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 경제여건은 질적으로 달라졌다. 실업자는 2백만명을 헤아리게 됐으며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됐고 또 빈곤인구가 크게 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국경제학이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문제, 말하자면 98년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의 연구영역인 분배와 빈곤 문제로 연구시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낮은 곳을 향한' 분배경제학이 요청된다. ♦

〈謹賀新年〉

새해에는 좋은 종이로
좋은 책이 더 많이 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회장 이종대

〈謹賀新年〉

한국 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새해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발전적 출판을
기원합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회장 김철영
총무 이석범

〈謹賀新年〉

새해에도 건전한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출판경영협의회 회장 백좌현
사무국장 이익배